

남구의회·남원시의회 자매결연 체결

의정분야 비교 견학 등 상호교류 협력 통해 공동발전 모색키로



남구의회는 지난 3일 전북 남원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구의회(의장 공명현)는 지난 3일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조영현)를 방문해 두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원·공무원 교류와 행정정보 상호 제공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두 도시 간의 공동발전을 꾀하게 된다.

의회는 이번 결연에 앞서 올해 초부터 지방의회 공동 관심사와 의정분야 비교 견학, 관광시설 및 자원 벤치마킹 등 상호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체결식에서 공명현 의장은 “남원시의회와의 교류로 양 지역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



남구의회·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자매결연 체결식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자”고 밝혔다. 이날 남원시의회를 찾은 방문단은 남원시의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함께하고 남원시정사와 의회사무실을 방문한 뒤,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영인 ‘춘향차’ 등의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

이후 춘향테마파크~천문대~광한루 등의 주요 관광시설을 둘러보며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옛 조

상의 일이 어우러진 예술품을 감상했다.

방문단은 두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더욱 교류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하며 남원시의회 방문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607-6524

■구정질문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운영을

단체 사업목적 불부합 예산 환수해야

새로운 평가지표. 기준 마련 요구

여승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남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실태 및 문제점에 관해 구정질문했다.

여 의원은 먼저 “남구를 대표하는 단체인 A협회와 A부녀회의 대표 사업이 꽃길조성사업과 환경정비사업, 이웃돕기사업으로 사업이 서로 다를 게 없으며 B위원회 사업 역시 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과 비슷하다”며 중복적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의 입장을 물었다.

여 의원은 또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이 집행됐다면 이 예산은 환수가 되어야 하고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C동우회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인 또는 친목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며 동우회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자체 평가표를 보면 단체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해도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과 단체원들의 사기와 처우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가지표와 기준 수정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일을 다하고 있는 남구의 여러 사회단체원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단체원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여 승 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아동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자

안전지도제작 자율방범대 결성 제안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실시 주장

김광명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1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이며 가해자도 10명중 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부터 교사교육,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외곽된 성의식을 교정하고 성자별적인 사회 통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강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김 의원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남구 곳곳의 아동 안전 물리적 자원과 학교 지킴이 봉사단, 배움터 지킴이 등을 포함한 인적정보,

페·공사, 유흥업소, 최근 3년간의 강력범죄 발생장소 등의 아동안전 취약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범죄 예방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 사회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들로 구성된 아동 성범죄 예방 자율 방범대를 결성, 통학로 주변과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배치해 범죄 예방순찰을 확대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아동성폭력 예방의 성과를 높이자고 말했다.



김 광 명 의원

■인터뷰－박 두 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막는데 주력

주민요구 반영된 지구단위 계획 변경위해 구슬땀

해양박물관 등 친환경적 공공시설 유치 주장

요즘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용호1동)의 최대 관심사는 ‘생태환경지·골목정지’ 실현이다. 그래서인지 박 위원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 주민들과의 접촉 횟수를 늘리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 위원장이 생각하는 지역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일까. 그는 주저없이 ‘용호만 매립지의 난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용호만대책위원회와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계획 중인 건물보다 높이를 더 올리는 대신 동수를 줄이면 뒤쪽에 위치한 아파트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민원해결과 부산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요구가 꼭 관철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지 매각에 급급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주민의 의견과 자신의 소신을 명확

하게 밝히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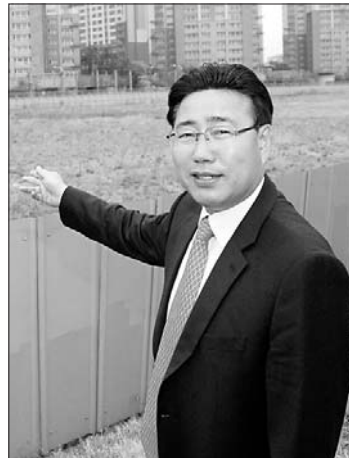
박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 용호만 정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포크레인 등으로 퍼 올린 오물을 바닷물에 행크내고 오니는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용호만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용호만 매립지에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였던 이곳에 지역 특성을 살려 수족관과 과학센터, 해양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술발공원의 정비를 위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파손된 곳을 보수 보강하고 우레탄 포장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와 쉼터, 화장실을 마련기 위해 뛰고 있다. 또한 삼성시장 등 전통시장이 인증시장으로 인증 받



을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재선의 박 위원장은 그동안 턱없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개설에 노력해 왔으며 무지개다리 보수와 삼성전자 앞 하수된개 보수, 비룡산 체육공원 운동시설 보수·보강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왔다.

용호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키워온 박 위원장은 현재(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남구지부장과 (사)충·효·예절전문운동부남본부남구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정치넷발포럼 남구지부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남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13일부터 7일간 열려

남구의회(의장 공명현)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건의 안건을 의결한다.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위원장 손예희)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박두춘)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안전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승철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김광명 의원은 아동성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19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기결)=주민들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록 등·초보 교부 시 인증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남인하여 발급함으로써 행정능률 및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기결)=지하수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심의 안건이 적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며 기타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자전거도로 공사현장 등 현장 방문

남구의회 공명현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지난 17일 부경대 대연캠퍼스~UN교차로간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사진 왼쪽)과 용호동 동생말~이기대 입구간 도로개설 구간 유적지 발굴 조사지역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이날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향후 추진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동생말 휴게소 도로개설과 연계된 각종 문제점 제시 및 녹지훼손에 따른 산객들의 안전성 확보, 유적지 발굴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의회 사무국 ☎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본회의장
- 방청대상: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동반 필수)
- 방청방법: 방청당일 오셔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면담 남구의회 오은택 운영위원장과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김동환 의원, 송상일 의원, 정혜숙 의원은 지난날 19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실을 방문,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용호동 매립지가 난개발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다는 부산시의 태도에 항의를 표시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용호동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남구 선거 관리 위원 회

공명이 쿼즈: 위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 ① 누구든지 ② 선거구안에 있는자 ③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퀴즈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bs.election.go.kr/namgu)에 함께 게시됩니다.)

- 정답은 6월호에 있습니다.
- 응모기간: 2011. 6. 10.까지
- 응모방법
 - 이 메 일: bsnamgu@korea.kr
 - 우편면서: 608-844 부산 남구 동제당로 267(우암동)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 응모자는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정답자를 추첨하여 위원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① 국회의원
- 지난호 정답자: 이창숙(우암1동), 서영희(문현2동), 김필호(용호3동)